

韓國 蔽膝에 관한 研究

李 正 玉 · 李 敬 淑

嶺南大學校 家政大學 衣類學科

A Study of Korean-styled Pasul

Jeong Ok Lee · Kyung Sook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Yeungnam University

(1987.3.2 접수)

Abstract

Pasul (Herein after referred to Korean-styled Pasul) to cover up the secrets, which has originated from Bool—an original mode of clothes is to put around a belt with a kind of towel.

With the development of culture, it has been handed down the parts of ornamental and symbolic functions, lost its particular and original one.

In general, we cannot exactly show when the Pasul has been used as a ritual dress, but, I dare to maintain in this thesis, which has been used in Koguryu era.

This thesis is summarized as follows:

1. The Bool, which is the first dress of all has its origin in the prehistory, and gradually has developed to a ceremonial dress with the help of man's intelligence.

2. Korean-styled Pasul has continuously been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o adding up, from Koguryu era to Yi dynasty).

Today, the color of the Pasul is known as a pink one, but I, herein, would like to refer that king Kojong in Yi dynasty had on a yellow-colored Pasul.

3. With becoming to be a form of ceremonial dress, the Bool has become to be complicated in style. For example, in the Koguryu era, the style is in the form of "U," and in Koryu era, it is the echelon formation tinting a pink color and weaving a mountain and flare shaped designs, and its dimension, the upper is one ja (a ja means a unit of length, 0.33 M), the lower, two ja, its length three ja.

The Bool of Yi dynasty tints a pink color, and weaves a seaweeds, rices, axes and shaped designs.

The Pasul which King Kojong in Yi dynasty put in, was a yellow-colored one weaving dragons and fire shaped design.

4. The Pasul is a ceremonial dress used a ritual or court dress.

The purposes of wearing it are to distinguish the upper from the lower classes, to make them abide by regulations, and to respect courtesy.

Accordingly, the Pasul, as the dress for special occasions does make us review the old and learn the new.

5. The reason that Pasul has been handed down are:

- 1) richness and fecundity.
- 2) symbol mark to represent classicalism.
- 3) to symbolize the authority by putting on it, for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upper from the lower classes along with the class consciousness in society.

6. On the basis of the study, the Pasul transition is to be handed down the function of the ornament and symbol, after lost its original func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culture.

I. 序 論

衣服이라는 것은 人類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方法의 하나로서 必然的인 동기에 의하여 생긴다. 그리고 自然的, 社會的 條件과 民族性, 時代性등 諸 要因이 相互作用하여 服飾의 變遷을 초래한 것이다. 各 時代의 社會制度등 時代的 背景과 服飾과의 關係를 糾明하고, 衣服의 구조 속에 잠재해 있는 그 時代의 思想이나 精神을 찾아내는 것이 必要하다.

蔽膝은 禮服에 달린 무릎가리개로 祭服이나 朝服에 착용하는 필수적인 裝飾品이다. 蔽膝은 원래 衣服의 기원이었지만 文化가 발달함에 따라 점차 퇴색되어 여러가지 중요한 象徴的 역할을 하고 있다. 蔽膝 그 자체가 權威를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하거나 중요한 기능을 한 것은 아니지만 祭服이나 朝服등의 禮服에서 權威를 나타내기 위한 象徴物로 近代에 이르기까지 소멸되지 않고 전승되었다.

이와같이 衣服의 원시적 형태라 할 수 있는 蔽膝이 소멸되지 않고 近代에까지 전승되었다는 것은 尙古精神과 存羊精神에 의한 것이라 보아진다. 그러므로 蔽膝은 象徴的, 裝飾的 기능으로 변해 왔다.

蔽膝이 衣服의 원시적인 형태로 무릎앞을 가린다고 하였으나 禮服에 사용되었던 蔽膝과 朝鮮時代 부녀자들의 일복에 사용된 행주치마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蔽膝과 행주치마는 앞을 가리는 작은 布이므로 같은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蔽膝은 禮服에 사용되는 상징적인 옷인 반면 행주치마는 부녀자들이 일할때 치마앞을 가려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적인 것으로 그 目的이 다르다. 즉 禮服에 蔽膝을 착용한 것은 衣服의 기원인 것으로 옛것을 잊지 않고자 하는 精神에 따른 것이다. 또 원시복식인 蔽膝이 東洋에 존재하는 것은 禮를 중시하는 東洋倫理에 따른 것이니 衣服에서 東洋思想을 거론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지금까지 蔽膝에 관한 研究는 별로 없고 다만 朝·祭服에서 언급될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高麗 毅宗朝에 처음으로 王의 祭服, 朝服에 사용되었고 王妃의 法服, 百官의 金冠朝服으로 입혀졌다”¹⁾는 정도로 나타나 있다.

衣服의 원시형태인 蔽膝은 文化가 발달함에 따라 象徴的이고 裝飾的인 것으로 되어 禮服에 착용하여 權威를 나타내었다. 蔽膝이 特殊儀式의 禮服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尙古精神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研究에서는 衣服의 원시적 형태로 생각되는 蔽膝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 문제를 研究하고자 한다.

1. 蔽膝의 根源은 무엇인가?
2. 韓國 蔽膝의 변천은 어떠한가?
3. 蔽膝의 樣式은 어떠한가?
4. 蔽膝着用的 用途는 무엇인가?
5. 蔽膝이 儀式用으로 전승된 까닭은 무엇인가?

II. 蔽膝의 根源

1. 蔽膝의 意義

蔽膝이라는 것은 祭服, 朝服의 儀禮用으로 쓰이는 무릎가리개이다. 蔽는 가리는 것이고 膝은 무릎이라는 뜻이다.

蔽는 가리는 것이다²⁾.

膝은 허벅지와 정강이 위에 있는 下肢사이의 마디이다. 마디에 따르는 것을 膝이라 한다³⁾.

무릎을 덮는다는 의미를 가진 蔽膝은 太古때에 앞을 가리는 옷으로 사용되었다.

옛날에는 사냥하여 고기잡아서 먹고 옷은 이것의 가죽으로서 먼저 앞을 가릴줄 알았고, 그後에야 뒤를 가릴줄 알았는데 後代의 王이 布와 帛으로 바꾸어도 앞을 가릴줄 알았던 것은 根本을 잊지 않기 위한 까닭이다⁴⁾.

衣服의 起源을 보면 처음에는 앞을 가리는 형태에서 차차 몸 전체를 덮는 다양한 형태로 변하였다. 따라서 의복의 기원을 상징하는 蔽膝은 裝飾의인 요소와 儀禮의인 象徴物로 되어 본래 목적인 恥部를 가리는 기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蔽膝은 특수계층에서 儀式을 거행할 때 착용해서 옛 것을 돌이켜 根本을 잊지않기 위한 精神의 표현으로 전승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 蔽膝의 由來

市은 가리는 것이다.

冕照는 市을 鞞이라 하였다. 上古時代에는 衣로 앞을 가렸을 뿐이다.

市의 形象은 一과 巾의 形象으로 帶를 연결한 모양이다⁵¹.

이로써 볼 때 市은 上古時代부터 앞을 가리기 위해 사용되어졌던 것으로서 그 形象은 띠에 巾을 연결한 단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옛사람은 먼저 앞을 가리는 것을 알고 後에 뒤를 가림을 알았다⁵².

앞을 먼저 가렸다는 것은 원시인들은 種族保存의 本能이 있어 種族保存의 도구인 생식기를 먼저 가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앞을 가리는 材料는 自然環境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草木皮 또는 獸魚皮등으로 몸을 가릴 정도였으니 그 形態는 지극히 단순하고 조감했을 것이다. 이것이 上古時代의 市이라고 추측된다.

市은 服裝中에서 가장 먼저 발명된 事物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裳이 발명된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옛날 책에는 기록된 것이 없으나 실정을 알고, 이치를 측정해 보면 대개 裳은 市의 後身이다. 裳은 市로부터 진보되어 나온 것이다⁷³.

蔽膝의 根源을 보면 앞을 가렸던 원시적인 것이 市이며 여기서 발달되어 裳이 되었다.

蔽膝의 원시적 형태인 市이 처음 나타난 時代는 太古時代라 함이 옳을 것이다. 원시시대에는 市이 유일한 衣服으로 사용되다가 人智의 발달과 함께 蔽膝의 모습으로 고정되어 裝飾, 道德, 禮儀, 標識의 목적으로 착용되었다. 市의 명칭을 보면 다양하다.

○大夫는 芾라하고, 士는 鞞이라 한다⁵³. (家禮輯覽)

○鞞은 鞞이다. 鞞은 蔽膝이다. 무릎앞을 가리는 것이다⁵⁴. (釋名)

○大巾은 蔽膝이다¹⁰. (廣雅)

○鞞은 韋와 紘을 따른다. 鞞의 별칭은 아주 많은데 다른 말로 <作芾><作鞞><作鞞><作蔽膝><作大巾>이다. 이는 用途나 方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명칭이 생긴다¹¹. (說文)

○蔽膝을 魏, 宋, 楚에서는 大巾이라 하고 關東西에서는 蔽膝이라 했다. 또 蔽膝을 江淮(河南省에서 安徽省, 江蘇省을 경유해 바다로 흐르는 강) 사이에는 鞞라 하며 關東西 지방에서는 蔽膝이라 했다¹². (方言)

○鞞鞞은 蔽膝이다¹³. (廣韻)

○鞞은 芾과 통한다¹⁴. (集韻)

○鞞은 說文에 鞞 혹은 鞞이라 한다¹⁵. (正字通)

○太古의 芾은 蔽膝의 形象이다¹⁶. (詩經)

○鞞은 韋로 만든 鞞이고 蔽膝이다¹⁷. (春秋)

○徐廣이 말하길 鞞은 巾과 같은 것으로 蔽膝이다¹⁸. (後漢書)

○芾은 太古에 무릎가리개 形象이다. 鞞의 古字로 사용되어진다¹⁹. (三才圖會)

○鞞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鞞이란 蔽(가린다, 덮는다)를 意味한다²⁰. (白虎通)

이상으로 보아 앞을 가리는 蔽膝의 명칭은 市, 芾, 鞞, 鞞, 大巾, 鞞, 鞞, 鞞, 鞞, 鞞, 蔽膝이 있다. 이들은 모두 같은 蔽膝이란 뜻인데 단지 用途나 方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이다. 市의 형상이 우리나라 禮服에 착용되는 蔽膝로 정해진 것은 언제부터인지 문헌을 통해서는 알 수 없으나, 高句麗時代 벽화에 蔽膝을 착용한 女人圖가 있으니²¹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보아진다. 中國에서는 舜임금 때부터 鞞이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鞞은 舜이 만든 것이다²².

有虞氏(帝舜)가 鞞을 입었고, 夏后氏(禹임금)는 山 무늬 옷을, 商나라(殷나라)에서는 火무늬 옷을, 周나라에서는 龍무늬 옷을 입었다. 鄭康成(鄭玄)注에 鞞은 舜임금이 만든 것으로 祭服을 높인 것이다. 三代에는 畫文을 증가시켰다. 冕服의 鞞이다²³.

鞞은 역사 이전부터 祭服에 사용되어졌던 것으로서 太古時代의 市에서 禮服에 사용된 鞞로 발전하여 계승되었다는 것은 不忘祖德과 尚古精神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원시적 형태의 市은 文明이 발달함에 따라 기능적 요소와 상징적 요소의 두 형태로 변모하였다고 본다. 즉 前者의 요소가 裳의 형태로 이어지고, 後者의 요소가 裳의 장식으로 변모한 것이다.



Fig. 1. 兪神塚 壁畫女人圖

II. 蔽膝의 變遷

1. 三國時代 蔽膝

三國時代 이전의 蔽膝에 관한 고찰이 먼저 이루어져야됨이 옳을줄 알지만 그 史料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史料에 한하여 三國時代부터 蔽膝을 설명하고자 한다.

平安南道 龍岡郡 梅山里 兪神塚 前室 西壁北便에 있는 婦人圖(Fig. 1)를 보면

特殊 祭服으로 앞에 드리운 행주치마 같은 것은 祭服에 따르는 蔽膝이고 등뒤에 드리운 朱簾같은 것은 祭服에 있는 綬이다²⁴⁾.

婦人圖에서 着用한 服飾이 衣裳連衣로 祭服이라 생각되며 무릎 앞에 드리워져 있는 것은 이 研究에서 밝히고자 하는 蔽膝이라고 보여진다. 그 형태는 U자형을 하고 있어 그 당시 中國의 蔽膝은 도끼형상으로서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兪神塚이 만들어진 연대는 高句麗 時代로서 中國과 비교해보면 中國 蔽膝은 夏, 殷, 周, 漢代에 이르기까지 그 형상이 도끼형상으로 진승되었으며, 近代 蔽膝에 가까운 사다리꼴 형태는 隋代이후에 완성된 것이라 본다. 그러므로 兪神塚이 만들어진 시기에 中國에서는 도끼형의 蔽膝을 착용했다. 그것을 문헌으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옷 앞에 가죽인 鞞 또는 錦綉의 蔽이 드리워져 있으며 그 형태는 둥글고 아래가 줄어드는 형상이다. 古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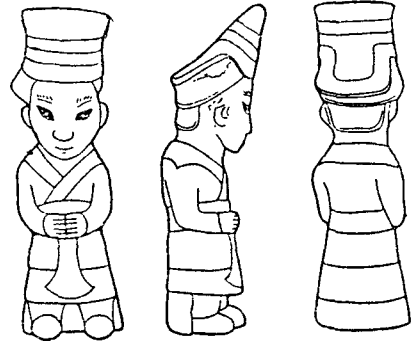


Fig. 2. 商代의 蔽

社會와 前期 封建社會는 몸앞에 있는 물건들이 권위를 상징하였으므로 材料와 色과 紋樣이 다른 것을 사용하여 본인의 등급을 구별했다. 이 材料 중에 옷을 입는 사람의 樣式이 각각 같지않는 점이 있다. 옷앞에 비교적 짧은 도끼모양의 裝飾物은 옷이 가장 오래된 韋鞞 또는 蔽이며 또한 後代의 문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蔽膝이기도 하다. 짧은 옷으로 무릎까지 오고 腹 앞에 紋樣과 같은 정밀하고, 아름다운 蔽膝이 裝飾되어 있다. 人物은 신분을 보는데 노예주인의 아들이 아니라면 지위가 비교적 높은 신복노예일 것이다. 그러나 간단한 문장으로 그 신분은 일정하게 비교되지 않는다²⁵⁾ (Fig. 2).

이로 보아 沈從文이 古代라고 표현한 것은 漢, 唐以前을 말한 것 같다. 왜냐면 蔽字를 쓸 수 있는 것은 魏, 晉 이후 錢을 사용하거나 자수를 놓았을 때라고 蔽膝의 材料에서 언급했다. 그렇지 않다면 蔽膝의 鞞字를 蔽字로 잘못 표기한 경우이다. Fig. 2에 나타난 蔽膝의 형상은 도끼무늬이다. 도끼형상은 단결을 나타내고, 德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도끼모양의 蔽膝을 했다면 신분이 미천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沈從文은 미천한 신분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도끼형상을 착용할 수 있는 신분은 지배층이 분명하고 또 權威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예계급에서 禮服을 입고 蔽膝을 착용했을 리는 없다. 그리고 쓰고 있는 冠의 형태를 보아도 노예계급은 아닌 듯하다. 蔽膝의 착용목적은 衣服으로서의 목적보다는 권위를 상징하고, 장식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周代의 蔽膝도 도끼형상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上衣의 前面이 矩領으로 되고 넓은 띠로 허리를 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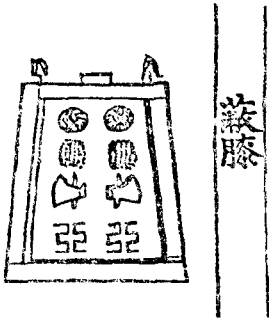


Fig. 3. 殿下蔽膝

고 허리아래 앞에는 각 1片的 도끼장식품으로 된 것이 있다. 사용한 가죽에는 朱 혹은 彩色 그림을 놓아 鞞鞞이라 하고 실로 엮어짜고 꽃으로 수를 놓아 鞞이라 한다²⁶⁾.

가죽에 그림을 그린 것은 韋를 사용했기 때문에 鞞이라 쓰고, 布에 繡놓은 것을 鞞이라 했으니 이것은 계급사회의 중요한 象徵物이었다.

2. 高麗時代 蔽膝

왕의 祭服에 蔽膝이 사용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고려시대 왕의 冕服은 宋, 遼, 金으로부터 사여받은 일이 있었으나 仁宗이 이르러 冕服에 蔽膝을 착용하였고, 毅宗 때 「詳定古今禮文」에도 그 기록이 보이고 있다. 仁宗 十八年 四月 詔 禮服章之制에 “敝 纁色 紕以爵韋 純以素縹以五采 繡山火”²⁷⁾이며 「詳定禮文」에 齋服에 달린 蔽膝은 “纁色 紕以爵韋 今以帛代純以 素縹以五采繡山火”이니 「高麗史」 「詳定禮文」에 나타난 蔽膝 紋樣은 宋代의 皇太子 蔽膝 制度와 같다.

袞服制度 蔽膝加龍山火三章
皇太子之服 紅羅蔽膝山火二章²⁸⁾

高麗의 蔽膝은 金나라에 따른 것이 아니고 漢族인 宋制度에 근거한 것이라 본다. 따라서 高麗도 오랑캐보다 앞선 文化民族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民族意識의 精神이 있었기 때문에 漢族系統이 세운 나라가 아닌 오랑캐의 服飾을 따르지 않고, 中國 고유의 衣服인 漢族系統의 冠服을 수용했다고 본다. 이런 民族意識은 恭愍王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恭愍王 十九年 明太祖 高皇帝 冕服에서 “蔽膝 纁色 總山火二章”²⁹⁾이다. 高麗 後期는 역사적으로 元에 복속되었기 때문에 服飾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元에 복속된 이후 친원파들은 몽고풍을 좇아 백성들의 원성을 들었으나 冕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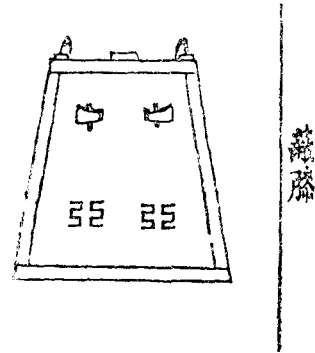


Fig. 4. 王世孫蔽膝

은 元에서 사여받은 일이 없었다.

이상 高麗時代 蔽膝의 문양을 보면 中國 皇帝가 龍·山·火三章인데 반해 高麗王은 山·火二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같은 것은 高句麗時代는 民族의 독자성을 구현하는 정치였으나, 高麗 때에 와서는 中國에 종속되는 외교관계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병폐라 하겠다.

3. 朝鮮時代 蔽膝

1) 朝鮮 前期

朝鮮 時代 政治의 기준이 된 「經國大典」과 국가의 기본 禮式을 적은 「國朝五禮儀」를 중심으로 朝鮮 前期의 蔽膝을 연구해보기로 하겠다.

(1) 祭服의 蔽膝

太宗 3年 9월에 謝恩使, 成石麟, 李原등이 京師에서 冕服에 대한 請을 받아들여기로 한 明의 咨文을 가지고 돌아왔다. 薰色 粧花의 蔽膝 1件과 五色線에 玉鉤가 달린 上帶를 가져왔다³⁰⁾.

太宗 3年의 冕服은 世宗代에까지 착용하였으므로 다시 사여하기를 청한 冕服의 蔽膝은 薰色の 粧花 蔽膝이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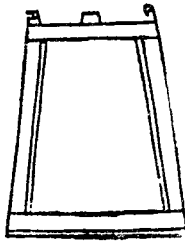
「國朝五禮儀」에 나타난 蔽膝을 보기로 하겠다.

殿下 蔽膝은 縹으로 만들고 薰色이다. 위에는 紕가 있고, 아래는 純이 있으며 위와의 사이가 5寸이며 藻, 粉米, 籩, 鞞을 놓았다³²⁾(Fig. 3).

王世子 冕服에 따른 蔽膝은 殿下와 同一하다³³⁾.

蔽膝의 制度는 王世子와 같은데 단지 縹에 籩, 鞞이 左右에 하나씩 있다³⁴⁾(Fig. 4).

「國朝五禮儀」는 世祖 때 완성된 것이므로 위의 蔽膝은 世祖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五禮儀」에도



蔽膝

Fig. 5. 絳紗袍의 蔽膝

이와같은 蔽膝이 있으니 世祖 이전부터 위의 蔽膝이 착용되어졌다고 본다.

(2) 朝服의 蔽膝

世宗 20年 10月 丙辰에 尙衣院에 傳旨하기를 高麗恭愍王 때에 하사받은 遠遊冠과 絳紗袍는 年代가 오래 되어서 여러번 改造하였는데 그때 中書省 공문에는 佩玉과 圭가 없고, 冕服 蔽膝에는 山, 火가 있어도 遠遊冠과 絳紗袍의 蔽膝에는 山, 火가 없다. 이제 尙衣院에 있는 遠遊冠과 絳紗袍에는 單佩玉이 있고, 蔽膝에 山, 火가 있으니 이것은 진실로 의심스러운 것이요³⁵⁾.

이러한 의심을 풀 수 있는 것은 中國 문헌에서도 蔽膝의 章紋이 있다가 없다가 했음을 알 수 있다.

明制 絳紗袍의 蔽膝은 본래 章文이 있었으나 永樂禮制에서 이것이 없어졌고 嘉靖改制에서 冕服과 같이 龍火章文이 다시 생겼다.³⁶⁾

우리나라에서 中國의 制度를 습용하다 보니 恭愍王代에 사여된 絳紗袍의 蔽膝과 世宗代 絳紗袍의 蔽膝에 있는 紋樣의 有無가 혼란스러웠던 것이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洪武禮制를 참작하여 「五禮儀」를 편찬하게 하고 蔽膝도 여기에 따랐던 것 같다.

殿下의 蔽膝은 絳羅로 만들고, 위에는 紕가 있고 아래에는 純이 있다.³⁷⁾(Fig. 5)

王世子の 蔽膝은 殿下와 同一하다.^{38,39)}

絳紗袍의 蔽膝은 袍色과 같은 絳色이었다 할 수 있다. 羅로 했다는 것은 紗와 다르게 나타나 있으므로 이상히 여겨진다. 그러나 羅 紗는 모두 帛의 일종이므로 혼용하여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또 紕와 純이 있다 함은 주위에 緣을 했다는 것이다.

(3) 文武官服의 蔽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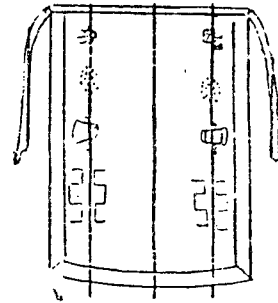


Fig. 6. 肅宗國葬都監儀軌蔽膝圖

朝鮮 時代 初期의 王朝實錄과 「經國大典」 및 「國朝五禮儀」에 실린 文武官의 蔽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文武官의 蔽膝〉

太宗實錄	自一品至九品	赤, 羅
世宗實錄	自一品至九品	赤, 羅
經國大典	自一品至九品	朝, 祭服
國朝五禮儀		赤, 羅

文武官의 蔽膝은 着用的 여부만 언급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制度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朝鮮 時代 文武官, 朝服, 祭服에 착용된 蔽膝은 各 가정에서 제작된 것이므로 치수는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 “가슴에 부착시키는 蔽膝은 衣에 바로 꿰맨 것도 있고 단추를 만들어 걸 수 있게 한 것도 있다.”⁴⁰⁾

王과 臣下의 蔽膝 制度는 달랐다. 蔽膝을 착용했을 때 길이는 가슴에서부터 무릎까지 내려온 것도 있는 반면 衣服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象徴的인 것으로서 착용되었으므로 喪服의 눈물받이와 같은 것도 있었다. 以上에서 볼 수 있는 것은 殿下, 王世子, 王世孫의 冕服에 착용된 蔽膝은 紋樣이 있는 반면 朝服에는 章紋이 없음을 알았다. 文武官의 冠服에도 章紋이 없다. 아울러 文武官의 蔽膝은 王服과는 달리 象徴的인 표시물로만 남겨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朝鮮 中期

明으로부터 사여받은 冕服은 仁祖三年(1625)이 마지막이고 그 후에는 冕服의 사여가 일시 중단되었다. 그 당시 中國을 지배하던 명나라는 漢民族이었는데 明이 쇠퇴함에 따라 민족주인 淸이 中國을 지배하게 되었다 朝鮮은 정통 漢民族이 아닌 民族을 섬길 수 없음을 고집하여 肅宗 이후는 冕服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淸의 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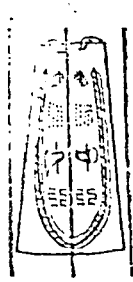


Fig. 7. 英祖國葬都監儀軌蔽膝圖

飾을 따르지 않았다. 이때 冕服 제작의 說이 분분하여 「國婚定例」「尙方定例」를 지어 여기에 준하여 제작했으며 그 제도는 大韓帝國이 성립되기까지 사용하였다. 朝鮮中期의 蔽膝을 「國葬都監儀軌 服玩圖說」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는. 服玩이란 國葬 및 禮葬, 王陵의 遷奉 때에 副葬하는 服飾類이다.

服玩品 크기는 평상시의 절반으로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다⁴¹⁾.

服玩은 평상시 王이 쓰던 것을 사용하고 새로 만들 때는 常制의 1/5 크기로 한다⁴²⁾.

실제 冕服의 形態를 그대로 갖추고 있다고 본다. 다만 크기가 축소되었을 뿐이다. 宣祖 國葬부터 哲宗 國葬까지 歷代 儀禮 服玩圖說을 살펴보면 蔽膝의 制度 및 形態는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宣祖 國葬부터 仁祖 國葬까지 服玩으로 사용된 蔽膝의 形態는 「國朝五禮儀 序例」와 같다.

孝宗 國葬부터 孝章世子 禮葬까지의 蔽膝에는 鈎가 없으며 대신 양옆에 靑色끈이 달려 있다(Fig. 6).

英祖 國葬부터 다시 끈을 없애고 鈎를 달았다. 안팎을 紅熟絹로 만들고, 앞의 三面에 五色 交絲로 만든 실머를 들렀으며 위에서 五寸 떨어진 아래에 四章紋을 두줄로 수 놓았다⁴³⁾(Fig. 7).

孝宗 國葬에서 景宗 國葬까지 蔽膝은 朝鮮 나름대로 독자적인 製作 時期였다. 英祖 때 蔽膝은 朝鮮 初期 形態로 된 것 같으나 會, 純, 紕를 매지 않은 점이 다르다 할 수 있다.

3) 朝鮮 後期

高宗 34년에 國號를 大韓이라하고 年號를 光武라고 쳐 朝鮮 王朝期 이후에 淸에 굴복했던 것으로부터 독립 국가를 이루었다.



Fig. 8. 大韓禮典蔽膝

淸은 冠服에 있어 수 천년 동안 전통을 이어온 中國固有의 것을 모두 폐지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제작을 따르이 가졌다⁴⁴⁾.

따라서 朝鮮 後期는 淸의 冠服制度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 朝鮮 後期 高宗 皇帝 때 蔽膝을 「大韓禮典」과 「禮服」을 참고로 했다. 「大韓禮典」과 「禮服」은 日·英文으로 된 것인데 統監府 日人官吏들의 便覽을 위해 정리한 것으로 舊韓末 禮服의 格式을 確認할 수 있는 資料이다.

皇帝 蔽膝은 裳色을 따르고 羅로 만들었다. 위에는 龍 한 마리를 수놓고 아래에는 火 셋을 수 놓았다⁴⁵⁾(Fig. 8).

이 制度는 明나라 嘉靖 八年에 更定된 制度와 동일하다. 明 嘉靖 八年의 裳은 黃色이고 蔽膝은 裳色에 따랐다.

皇帝의 蔽膝은 黃色에 龍·山·火 三章이다. 皇太子 親王은 纁色에 山·火 二章이다. 文武官은 赤色이며 無章이다⁴⁶⁾.

永樂禮制에 皇制, 皇太子, 世子는 藻·粉米, 黼黻紋을 각 2개씩 織成하였고, 君王은 黼黻紋을 2개씩 織成하였다⁴⁷⁾.

明 嘉靖 年間에 改定된 皇帝 冕服의 蔽膝을 보면 黃色 蔽膝에 위에는 龍을 하나 밑에는 火를 셋 수 놓았다⁴⁸⁾.

洪武 十六년에는 黃色에 龍·火·山紋이고, 永樂 三年에는 纁色에 藻·粉米·黼·黻紋이고, 嘉靖 八年에는 다시 黃色에 龍·火紋이다. 明代의 蔽膝이 이와 같

鞞 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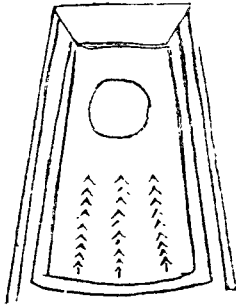


Fig. 9. 詩傳大全

圖 鞞 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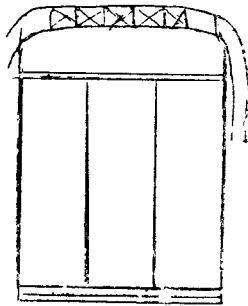


Fig. 10. 三才圖會

圖 膝 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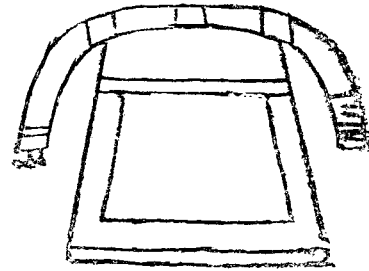


Fig. 11. 三才圖會

蔽 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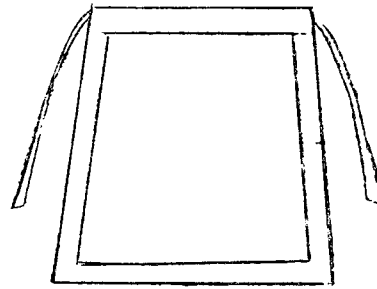


Fig. 12. 三才圖會

으나 朝鮮 後期 高宗 때 착용한 蔽膝은 明 嘉靖 八年에 개정된 제도와 같다. 이는 李朝 後期 서구 세력들과 문호개방 이후 제국주의 침략속에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大韓帝國으로 국호를 고치고 光武라는 연호를 사용하면서부터 中國과 대등한 위치에 서서 服飾을 九旒冕, 九章服에서 十二旒冕, 十二章服으로 고치고 蔽膝도 十二章紋의 하나인 龍 한 마리와 火 셋을 수 놓고 色彩 또한 黃色으로 변모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 朝鮮 初, 中, 後기로 구분하여 蔽膝을 도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時 代	着用者	紋 樣	色
朝鮮 前期	世 祖	藻, 粉米, 黼, 黻	纁 黻 纁 赤
	王世子	藻, 粉米, 黼, 黻	
	王世孫	黼, 黻	
	文武官	無	
朝鮮 中期	肅 宗	藻, 粉米, 黼, 黻	紅 紅
	英 祖	藻, 粉米, 黼, 黻	
朝鮮 後期	高 宗	龍, 火	黃

朝鮮 前期부터 中期까지 王의 蔽膝 紋樣은 藻, 粉米, 黼, 黻紋이었다. 高宗 때는 皇帝라는 칭호와 함께 12章紋에서 사용되는 龍이 이용되어 龍과 火紋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 朝鮮 時代 初期 蔽膝의 色은 纁色이었고 독자적으로 제작한 朝鮮 中期 蔽膝의 色은 紅色이며 後期는 黃色이었음을 알 수 있다.

IV. 蔽膝의 樣式

1. 形態 및 值數

앞에서 언급된 韓國 蔽膝의 形態變遷과 中國 蔽膝의 形態變遷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龕神塚의 女人圖(Fig. 1)에서 보이는 蔽膝의 形態는 U形이다. 이것은 蔽膝의 變遷에서 언급되었듯이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韓國 독자적인 것이다. 그 形態를 고증할만큼 紋樣 色彩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形態를 설명할 수 없다. 高麗 仁宗 때 중국에서 사여된 蔽膝의 形態가 사다리꼴로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이와같은 形態가 어떻게 해서 전해졌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詩傳大全』과 『三才圖會』에서는 蔽膝의 형태가 서로 달리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9, 10). 『三才圖會』의 것은 四角形으로 3幅이 이 어진 형태를 帶鞞이라 하고 또 사다리꼴로 된 것은 蔽膝 (Fig. 11, 12)이라 하여 『三才圖會』一冊에서만 해도 帶鞞과 蔽膝의 형태를 달리 표현하고 있다.

(Fig. 10)의 帶鞞은 蔽膝의 幅을 연결한 것이며 裳을 만들게 한 始初라 생각되기 때문에 『詩傳』에 나타난 사다리꼴 형태가 蔽膝의 原初의 形態로 보아진다. 따라서 高麗 時代に 사용된 蔽膝의 형태는 『三才圖會』에 나타난 帶鞞이 아닌 蔽膝이라고 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隋代의 蔽膝은 高麗 時代の 蔽膝 制度와도 같다.

裳 앞을 가리는 것으로 上의 幅은 一尺으로 天數를 말하며 下의 幅은 二尺으로 地數를 말한다. 길이는 三尺으로 人을 말하며, 三才를 말하는 것이다. 또 龍·山火를 구비하여 三代의 法度를 따르려 했다⁴⁹⁾.

高麗史에 나타난 蔽膝 制度는 “紕以爵章 純以素紉以五采 繡山火”라 하니 추측컨대 隋代의 형태와 같다. 그 기본형태에 더욱 자세한 韓國 蔽膝의 형태를 圖로 볼 수 있는 것은 朝鮮時代『國朝五禮儀』에서이다. Fig. 3에서 나타난 蔽膝은 殿下의 것으로 紕, 純이 있으며 左右에 藻, 粉米, 黼, 黻紋을 수 놓았다. 또 帶에 걸 수 있는 鈎가 있다. 그러나 朝鮮 中期의 蔽膝은 前期 蔽膝과 차이가 있다. 그 까닭은 앞에서 말했듯이 朝鮮에서 독자적으로 제작했기 때문이다. 肅宗 때의 것을 보면 (Fig. 6) 직사각형이며 鈎대신 끈으로 되어 있다. 또 英祖 때의 것은 高麗 時代와 같이 사다리꼴이고 上右下를 빙 둘러 紕가 있으며 肅宗 때와는 달리 鈎를 단 정태이다.

朴珪壽는 會, 紕, 純, 紉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鞞의 길이는 尺이며 아래 幅은 2尺, 윗 幅은 1尺인데 會의 윗부분과의 간격은 5寸이다. 紕는 爵章로서 6寸인데 아래로 5寸에 이르지 않는다. 純은 素色으로 하고 紉은 다섯가지 色으로 한다. 頤은 5寸이고 어깨와 가슴까지 幅이 2寸이다⁵⁰⁾.

『禮記』〈玉藻〉 및 〈雜記〉에도 이와 같은 용어해석을 찾아볼 수 있다.

會라는 것은 頤 위에 바느질할 말한다. 頤기 넓이는 바는 매개 紕와 같다. 旁에 있는 것을 紕라 하고, 아래에 있는 것을 純이라 한다. 紕가 6寸라는 것은 가운데를 잡으면 안팎 각 3寸가 된다. 純은 紕가 이르지 않은 곳이 5寸이니 會 윗부분과의 간격은 같다. 紉을 가

鞞 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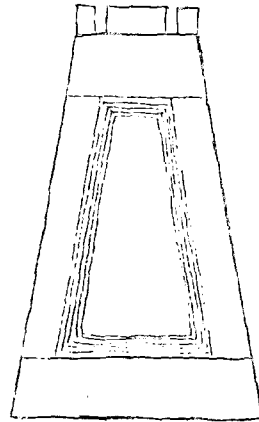


Fig. 13. 居家雜服攷

운데 바느질한 것은 오늘날의 條와 같다⁵¹⁾.

頤이 5寸라는 것은 역시 幅을 말한 것이다. 頤은 中央이며 肩은 양쪽 角이니 모두 위로 붙었는데 革帶로 그것을 매어 두었으며 肩과 革帶의 幅은 같다⁵²⁾.

鞞은 길이가 3尺이니 큰 띠와 같다. 아래는 넓고 위는 좁으니 하늘과 땅의 數를 형상한 것이다. 會가 위와의 거리가 5寸라는 것은 會는 鞞의 목을 바느질한 곳인데 재봉선이 鞞 윗 단계까지의 幅이 5寸이니 會의 上·下 幅이 5寸라 한 것이다. 紕는 爵章로 하는데 6寸라는 것은 재봉선 아랫부분의 鞞 양쪽 가장자리에 爵章을 대는데 그 幅이 6寸이고 거꾸로 주름잡은 양쪽의 幅이 각 3寸이다. 아래로 이르지 않은 것이 5寸라는 것은 紕와 鞞의 양쪽 가장자리가 鞞의 아랫단에 이르지 않은 幅이 5寸임을 말하는 것이다. 純은 素로 만드는데 素는 生帛을 말한 것이니 帛의 아래 위 幅이 5寸인 것이다. 紉은 5가지 色으로 하는데 紉은 실머를 각 재봉선 가운데에 두는 것을 이룬 것이다⁵³⁾.

頤이 5寸라는 것은 역시 幅을 말한 것이다. 鄭玄이 上下 길이가 5寸인 것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幅이라 고 말한 것이다. 上下에 미치는 肩과 革帶는 모두 2寸이다⁵⁴⁾.

『居家雜服攷』의 그림으로 설명을 더 할 것은 다음과 같다. 형태는 사다리꼴로 위의 幅은 一尺이며, 아래 幅은 二尺이고, 길이는 三尺이다. 帶에 걸 수 있도록 편리를 주는 가운데 고리 幅은 5寸이고 左右고리 幅은 2寸이며 3고리 높이는 2寸이다. 윗단에서 아래로 5寸 내려진 부분을 會라 말하고, 아랫단에서 위로 5寸

올려진 부분을 純이라 하며 左右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3寸 들어간 것을 紕라 한다. 紕에는 赤·白·蒼·縹·綠의 5가지색으로 실을 엮은 것을 紕이라하고 紕의 넓이는 3寸인데 실제로 엮은 실을 붙이는 데는 약간의 줄어듬이 있을 것이니 정확히 그 넓이가 3寸인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孔穎達은 蔽膝이 아래는 넓고 위는 좁은 것이 하늘의 形象이라 했다. 朴珪壽 또한 그렇다고 생각했다.

윗 넓이는 一尺, 아래 넓이는 二尺, 하늘은 1이요, 땅은 2이다. 길이는 三尺인데 天, 地, 人을 法으로 삼아서 제정했다⁵⁵⁾.

蔽膝의 制度는 우주 형성의 법칙으로 생각되는 三才를 기초로 하여 치수를 설정했다.

三數는 宇宙에 存在하는 天地人을 象徵해서 道理로 삼았다⁵⁶⁾.

三이라는 數는 一과 二의 合을 말하고, 一과 二는 陽과 陰이므로 調和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또우주는 처음에 無極에서 陰과 陽이 생긴 것이고, 蔽膝은 衣服의 원초적인 형태라는 것을 앞에서 말했으니 蔽膝의 치수를 우주 형성의 기본적인 법칙에 적용시켜 제작했다 하겠다.

2. 材 料

人間이 衣服을 착용하는 방법은 自然環境에 따랐다고 할 수 있으니 皮복재료로서는 草木皮 혹은 獸魚皮 등으로 몸을 가렸다. 蔽膝은 그 명칭에 따라 재료를 달리 했음을 알 수 있다.

옛날 先王이 새와 짐승의 고기를 먹고 그 깃털과 가죽으로 옷을 지었으므로 韃이라는 글자는 韋(가죽)를 따르게 되었다⁵⁷⁾.

冕服은 芾이라 하고 기타 옷은 鞞이라 하여 韋로써 만들었다⁵⁸⁾.

鞞은 芾인데 芾는 무릎을 덮는 것이며 가죽으로 했다⁵⁹⁾.

따라서 鞞의 재료는 어느 民族이든 처음에는 韋로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은 蔽膝이 원초에 韋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면서 文字가 芾과 鞞이니 艸와 韋로 다르게 적혀 있음은 무슨 까닭인가? 蔽膝이라고 기록되기 이전에는 鞞, 鞞, 鞞이라하니 그 재료는 韋 또는 革이었다고 본다.

朱子는 韋라는 것은 삶은 皮이다⁶⁰⁾.

皮는 털이 붙어있는 가죽이고, 革은 털이 없는 가죽이다⁶¹⁾.

皮는 털을 제거하지 않은 가죽이고, 革은 털을 제거한 가죽이며 韋는 革을 부드럽게 가공한 것이다⁶²⁾.

원초적 衣服에서 유래된 고대 사회의 蔽膝 재료는 삶은 가죽 혹은 털이 없는 가죽을 사용하였다고 하겠다. 오늘날 蔽膝의 재료는 韋나 革이 아니고 布나 帛이다. 蔽膝 명칭을 보아도 그것을 증명해 준다. 糸나 糝를 사용하여 紕, 紕, 鞞 등의 글자가 생겨난 것이다.

오늘날도 역시 노루나 사슴등의 가죽을 염색하여 만드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後代에 가죽을 쉬 준비해 둘 수 없으니 布나 帛등을 물들여서 만드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⁶³⁾.

蔽膝은 길은 羅로 하고 안은 絹로 한다⁶⁴⁾.

後代의 皮복재료는 가죽보다 布나 帛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布로 대응했다고 시인하지만 가죽으로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 이것은 옛 文化가 소멸해 가는 것을 보존하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것이고, 고유성을 잃지 않고자 하는 思想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文化가 발달되면 社會에 순응해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기에 무방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따라서 蔽膝의 材料는 皮복材料의 발달에 의하여 韋에서 布나 帛으로 바뀌었다. 그 材料가 바뀌었으나 옛 것을 지킨다는 根本은 변함없다. 蔽膝은 材料에 따라 명칭을 달리 나타내었다. 가죽으로 하였을 때는 鞞, 鞞, 鞞, 鞞로 쓰였으며 布로 바뀌게 된 이후에는 紕, 紕, 鞞, 蔽膝이라 하였다. 아울러 布를 사용하므로써 韋를 새겼으리라 생각된다. 또 蔽膝의 材料가 韋에서 布로 바뀌었다 해도 옛 것을 지킨다는 精神은 변함없음을 알았다.

3. 色 彩

古代 蔽膝은 祭服에만 사용되었으므로 붉은색이라 생각된다. 祭祀를 지내는 사람의 마음이 赤心(충성심)이기 때문이다.

赤色은 南方으로 溫暖한 곳이며 萬物이 茂盛해서 陽生氣가 旺盛한 곳이다⁶⁵⁾.

大紅은 日出의 色이요, 朱紅은 해가 南中했을 때의 色이다. 해가 正南에 있을 때가 日出때보다 貴하므로 天子는 朱市을 입고, 諸侯는 赤市을 입는다. 赤은 纈이다⁶⁶⁾.

그러므로 붉은색이 韞에 사용되어졌으며 色으로 着用者의 身分高下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韞은 더욱 貴한 것으로 여겨졌다. 古代 蔽膝의 色을 알기 위하여 中國의 문헌을 살펴보면

周나라 때 여러 臣下들의 옷(蔽膝)에 緇, 赤의 구별이 있었다⁶⁷⁾.

궁궐에 있는 임금님의 붉은 폐슬 눈부시네. 붉은 폐슬에 황금색 신발이 있네⁶⁸⁾.

天子는 朱紘이라 하고, 諸侯는 赤紘이다⁶⁹⁾.

一命은 緇色의 韞을 하고, 再命은 赤色의 韞을 하고, 三命도 赤色의 韞을 했다.

注에 緇色은 赤黃의 間色이고 韞라고도 한다. 周禮에 公侯伯의 卿은 三命이고, 그 大夫는 再命이고 그 士는 一命이라 한다. 子男의 卿은 再命이고, 그 大夫는 一命이고 그 士는 命이 없다⁷⁰⁾.

周나라에서는 赤色을 숭상하였으므로 蔽膝에도 赤色系統을 사용했을 것이며 더우기 원초적인 衣服을 전승한 蔽膝의 色으로 天子는 朱色, 三命은 赤色, 二命도 赤色, 一命은 緇色으로 자세히 구분했다는 것은 신분 사회에 따른 계급의 표시라 할 수 있다.

赤色系統이 古代 思想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易經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陰陽과 五行思想에서 赤色은 방위로 南方을 나타내고, 숫자로는 二, 七이며 불(火)을 상징하고, 禮를 나타내었다. 赤色에 해당하는 易의 개념을 보면 二, 七은 南에 있고 七은 二위에 있으며 二는 南하여 陰이 生火하고, 七은 南하여 陽이 盛火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赤色系統을 禮服인 祭服에 사용했다. 또 赤色의 生活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멀리 大空에는 붉은 太陽이 있어 生存上 不可避한 光明과 熱 그리고 萬物의 生成과 創造를 좌우했다. 또 保溫과 飲食物을 熟蒸하는 火가 있어 人類 文明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다음은 우리 體內에서 血管 속이고동치는 붉은 血液이 있어 이것은 生의 象徴이며 情熱, 愛情, 至誠을 의미했던 것이다⁷¹⁾.

南은 萬物을 生産하는 陽이 盛하는 곳이고, 太陽, 血液, 火 등을 나타낸 방위라 할 수 있다. 또 南方은 항상 太陽의 빛인 火를 받기 때문에 夏를 나타내고 적 극적이고 능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赤色系統은 인류생활에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이다. 이와 같이 생존상 절대불가결한 太陽, 火, 血液 등을 古代人들은 神聖 혹은 神秘視하여 이것을 敬畏하면서 崇尙

하고 高貴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蔽膝에 赤色系統을 사용한 이유는 蔽膝이 祭服에 착용하는 것이며, 赤心을 나타내는 赤色은 根本 뜻을 잊지 않고자 하는 禮의 精神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赤色을 神聖視하다 보니 特殊儀式에 쓰이는 蔽膝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蔽膝에 사용된 色의 象徴性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朱色

朱色은 무엇으로 염색했는지 살펴보면

羽를 朱로 染色하는데 丹雘 녹인 것에 담그어 3개월이 지나면 盛해진다. 거기에 3번 넣어 물들이면 纁이 된다. 三번 물들이면 纁이 되고, 五번 물들이면 緋가 되고, 七번 물들이면 緋가 된다 하였다. 이는 모두 겹겹 염색하는 법이니 四번 들이고 六번 들인다는 글은 없다. 禮에는 玄과 朱의 色이 있으므로 玄을 註함에는 六번 들인다고 한 것이다. 下經註에 四번 물들이면 붉은빛(朱)이 된다고 하였다⁷²⁾. 처음 물들인 것을 纁이라 하고 다시 물들인 것을 纁이라 하고 세번 거듭 물들인 것을 纁이라 한다⁷³⁾.

따라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물들인 색의 명칭이 나오나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또 丹雘의 양과 물의 양이 일정하지 않아 확실한 색상을 알아낼 수 없다. 鳥羽에 붉은 丹雘으로 물을 들여 여러 가지 붉은 종류의 색깔을 얻고 여러 번 물들이면 나중에도 검은 빛이 된다. 이와 같이 붉은색의 명도차이와 검은 색의 명도차가 한 물감에서 나타난다.

纁을 赤色에 넣으면 朱가 되고, 纁을 黑色에 넣으면 紺色이 된다⁷⁴⁾.

朱色의 염색법에는 세번 염색한 纁色을 赤色에 넣어 朱色을 만들거나 네번 염색하여 朱色을 만드는 두가지 법이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赤色에 넣는다는 것이 丹雘에 한 번 더 염색한다는 말일 것이다.

垂朱路의 疏에 색이 옅은 것을 赤이라 하고 짙은 것을 朱라 한다고 하였다⁷⁵⁾.

지금까지의 7染法에는 赤色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위 문장에서 보면 赤이 朱보다 옅은 색이다. 染法으로 보면 朱가 4색이니 3색까지에서 赤色이 나와야 한다. 이 7染法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규명을 할 수 없고 일곱 가지 색깔의 明度나 彩度도 科學的인 것은 아니다. 같은 붉은 色 중에도 朱色은 으뜸되는 색으로

간주되었다.

中國天子의 冕旒冠은 上玄下朱(表玄裏朱)로 天地의 道를 상징하는 것이었다⁷⁶⁾.

大紅은 日出의 色이고 朱紅은 日中之 色으로 海가 正南에 있을때 色이다. 海가 正南에 있을 때가 日出때보다 貴하므로 天子는 朱市을 입고, 諸侯는 赤市 즉 絳市을 입는다⁷⁷⁾.

이와 같이 天子의 冕旒冠과 蔽膝이 모두 朱色을 썼다는 것은 天子는 여러 君臣과 百姓을 다스려야 하므로 正陽의 빛깔로 했다 할 수 있다. 즉 朱色은 高貴한 色으로 가장 강렬한 빛이므로 天子가 입는 蔽膝도 朱色인 것이다.

2) 赤色

蔽膝 색깔은 赤色인데 이것은 絳色과 같은 것이다.

茅蒐 일명 茜로써 絳色을 염색한다⁷⁸⁾.

丹雘 이외에 茜를 가지고 染色하였음을 알 수 있다. 絳의 色調를 보면

絳은 大赤이다⁷⁹⁾.

大赤은 大紅이라 하였으며, 大紅은 朱紅보다 짙으며 朱紅이 日中之色임에 비해 大紅은 日出之色이다⁸⁰⁾.

絳은 大紅이라 했다⁸¹⁾.

이로 보아 大赤은 大紅이며 絳色이다.

7월에 紅藍花를 따서 옷에 물들이면 빛이 선명하고 오래 지나도 얼룩지지 않는다⁸²⁾.

大紅色은 紅花餅을 鳥梅水로 煮出하고 鹼水로 數回 沓게 씻는다. 色이 심히 鮮明해진다⁸³⁾.

따라서 天子의 色은 日中之色인 朱色이며 臣下는 日出之色인 赤色인 것을 알 수 있다.

3) 纁色

纁은 赤黃間色이며 赭이다⁸⁴⁾.

纁色은 二次色으로 赤黃의 間色임을 말하고 赭라고도 한다. 그러나 꼭 같이 赤黃色이 섞인 것이 아난가싶다.

黃과 赤을 결합 色이 纁이라는 것이다⁸⁵⁾.

이로 보아 赤黃間色에도 纁, 赭, 纁이 있어 黃과 赤의 농도가 조금씩 다르게 섞인 것이 아난가 싶다.

옛날에는 茜로 물들인 것을 赭 또는 纁라 한다⁸⁶⁾.

赭翰이라는 것은 茅蒐의 풀을 물들여 한 번 한 것을 赭翰이라 한다. 鞞을 대신하는 것이다. 頤에 赭翰이라

는 것은 衣服의 이름이요. 頤이란 赤의 모습이라 傳에 頤이라고 말한 까닭을 설명하기를 茅蒐의 풀을 사용하여 물들이는 데 그 풀이 赤色인 까닭이라고 하였다. 옛날 사람들이 茅蒐를 말할 때는 그 소리가 赭翰가 같았으므로 이 옷을 赭翰이라고 이름한 것이다⁸⁷⁾.

지금 齊나라 사람들은 蒨을 赭翰이라고 이름한다⁸⁸⁾.

그러므로 纁色이라는 것은 赤黃의 間色으로 赭 또는 蒨, 纁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纁色

纁色의 染色에 대한 것은 앞의 朱色과 赤色에서 모두 언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단지 蔽膝의 色이 身分高下에 따라 구별이 있었던 것이 明 成宗때 纁色으로 고정되었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纁色의 시대적 개념은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 시대에 새로운 哲學的 이론이 발생되면 그에 적합한 새로운 색채가 나타날 수 있다. 玄이나 赤과 같은 두 色의 결합은 검고 붉은색을 말하기 이전에 天地라든가 男女와 같은 哲學的 개념을 나타낸 것이며, 可視的 色彩보다 哲學的 思考에 근거를 둔다 하겠다. 地를 상징하는 色으로 赤黃間色인 纁色을 쓴 까닭은 다음과 같다. 赤은 南方色이고 黃은 中央이다. 裳은 坤이며 坤은 西南方に 위치한다. 따라서 坤의 색깔은 南方의 赤色과 中央의 黃色인 間色으로 纁이 된 것이다. 東洋에서는 纁色이 땅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통일된 思考를 가졌던 것이다. 여기서 朱와 赤과 纁을 비교하여 보면 朱는 日中之色이고, 赤은 日出之色이며, 纁은 落日之色이니 朱는 赤보다 짙고, 赤은 纁보다 짙음을 알 수 있다. 玄 纁의 色은 天地의 色이라 하여 祭服의 衣는 玄, 裳과 蔽膝은 纁으로 했다. 纁色은 落日之色으로 자연현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새로운 것의 기초가 되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니 永久不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한다.

4. 紋樣

蔽膝에 사용되어진 문양으로는 山, 火, 龍, 粉米, 黼, 黻紋이다. 蔽膝의 紋樣은 時代에 따라 달리 구성되었다. 즉 高麗時代에는 山, 火紋이며, 朝鮮初期부터 後期까지는 藻, 粉米, 黼, 黻紋이었으며 高宗때는 龍, 火紋이었다. 따라서 蔽膝에 사용되어진 紋樣형성의 단계와 오늘날 蔽膝 紋樣이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1) 高麗時代의 형태

高麗 仁宗때에는 山, 火紋이었고, 朝鮮初에서 後期

에 이르기까지는 藻, 粉米, 鬮, 黻紋이었고, 朝鮮末 高宗 때에는 皇帝의 칭호와 함께 12章服을 사용하므로서 蔽膝도 龍, 火紋을 사용했다.

(1) 山紋樣

山무늬는 直線과 曲線의 幾何的 紋樣으로 雷紋에서 부터 형성되었다고 본다. 雷紋이 생긴 時期는 櫛目文 土器文化期로 빗살무늬가 생기게 된 동기와 같다. 비가 내린다면 번개가 치면 그 비와 번개의 형상에 따라 무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表面이 완벽하게 施紋되어진 直線雷紋이 보이는데 이것의 連續는 ㉟形 motive와 S字形 motive가 直線化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motive의 連續인 구성으로 성립된 紋樣이 錯視의인 視覺에 의해 紋樣으로 되어 I字形, 山字形, Z字形, 亞字形, T字形으로 發展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⁹⁾.

雷紋이 곧 山形의 무늬로 發展되었다. 字意로 보면 雷는 雨 밑에 田字를 配置하여 雷를 나타내었고, ㉟形을 雷로 象徵하여 번개가 田에 떨어진다 것을 表現했다. 즉 번개와 천둥소리가 大地에 비를 내리도록 하여 農作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雷紋의 motive를 이룬 것이다. 따라서 雷紋이 山字形에서 비롯되었고 이런 山紋樣이 古代에는 幾何紋으로 表現되었지만 後代로 오면서 山의 章紋은 寫實的인 形으로 그려져 鎮靜의 意味를 나타내었다. 山字의 甲骨文字는 세 개의 산봉우리로 되어있다. 즉 山이란 세 개의 꼭대기 이루어져 있다. 세의 수는 모든 物質과 生命의 基本이 되며 萬物의 始源을 뜻한다. 또 사머니즘시대에 있어서의 天界(세계의 중심)는 곧 山으로 표현되며 山은 天界를 表象할 뿐만아니라 三 즉 三極(天·地·人)의 基本원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蔽膝에 나타난 山形이 세 봉우리를 表現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연유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산울 그리는 것은 그 仁이 우러러 불만함을 취한 것이다⁹⁰⁾.

山의 意味는 크고 방대하며 不動의 느낌을 주어 鎮靜의 뜻을 나타내므로 百姓의 崇拜 대상이 되었다. 또 山이 仁을 취하듯이 君이 百姓을 仁으로 다스리기 위한 뜻에서 사용된 것이라 본다.

(2) 火紋樣

河圖說에 의거해 보면 火는 南쪽에 위치하면서 陽이 盛하는 곳이다. 陽이 盛하다고 하는 것은 太陽을 意味하는 것이니 火는 바로 太陽에서 유래되었으며 太陽은

天에 있는 것으로 亨通함을 나타내어 尊貴함을 뜻할 수도 있다. 따라서 火무늬가 사용되어진 것은 이 根本을 잊지않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과 같이 火도 인간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것이므로 火의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紋樣으로 채택된 것이다. 그러므로 火의 起源은 上古時代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上古 原始時代의 火는 生滅을 定하는 것으로 그 威力에 抗拒하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믿어 崇拜의 대상이 되었다. 또 火는 人間의 日常生活에 중요한 것이었으며 火의 발견은 文化發展이라는 큰 意義를 가진다. 따라서 蔽膝에 火紋樣이 사용되어진 것은 禮가 俗의 根本이 되듯이 人間의 日常生活에 중요한 火의 根本을 잊지않기 위해서 紋樣으로 채택된 것이다.

2) 朝鮮時代의 형태

朝鮮 太宗 때부터 高宗 이전까지는 藻, 粉米, 鬮, 黻紋을 사용하였으며 高宗 때는 龍, 火紋을 사용했다.

(1) 龍紋樣

四神思想의 根源이라고 할 수 있는 動物을 보면 四方을 守護한다는 뜻에서 東 靑龍, 西 白虎, 南 朱雀, 北 玄武를 方位에 따라 表現했다. 龍이 무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東은 陽이 長하는 곳이고 萬物의 元(으뜸)이 되는 곳이다. 따라서 龍은 모든 동물의 元祖라고 생각해서 龍을 東쪽에 배치했다. 즉 方位의 元과 動物의 元이 일치한다. 또 蔽膝이 最初의 衣服이라는 사실로 보아 동물무늬의 元이 龍이므로 龍을 蔽膝의 紋樣으로 취한 것은 으뜸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龍紋樣은 으뜸되는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象徵의 紋樣으로 채택된 것이다. 龍은 원래 實存動物이 아니고 人間이 想像한 추상화된 형태로서 지역에 따라 혹은 時代에 따라 相異한 龍型이 表現되었으며 時代的인 思想의 변천에 따라 그 型이 轉移되어 온 것이다.

龍의 起源은 BC 3000년경 黃帝가 禹의 德을 얻어서 黃龍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蚯蚓이며 蟻를 가리키는 것으로 곧 蛇이다⁹¹⁾.

上古時代 蛇類에 대한 Totemism에서 비롯되어 殷代, 周代 銅器上에는 뱀을 닮은 괴이한 形象의 虺龍, 螭龍, 雙龍이 靜態式 구성으로 표현되고 있다⁹²⁾.

龍은 괴기하고 단순한 형태에서 점차 복잡한 形으로 발전되어 初期의 龍과는 달리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龍의 무궁한 조화와 변화 때문에 권위를 나타내는 象徵的인 紋樣으로 바뀌게 되었다.

(2) 藻紋樣

藻는 본디 藻라고 썼는데 艸와 水와 巢를 따른 것이 다⁹⁵).

고기는 水藻에 산다고 하였으니 이 藻는 水草이다. 草類가 많지만 이 풀을 취한 것은 이 풀에 紋彩가 있기 때문이다⁹⁶).

藻는 水에 있는 草이다. 그러나 水草中 가장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무늬를 한 것은 문양 자체가 장식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藻의 紋彩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上代에는 神에게 清潔해야 하는 思想이 있었다. 清潔을 요하는 장소에 藻紋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藻紋이 水草의 清潔함을 象徵한 것으로 알 수 있다⁹⁷.

그러므로 藻는 청결해야 한다는 것을 象徵한 것이다. 藻를 무늬로 쓰는 이유는 紋彩가 있고 깨끗하기 때문에 고기가 놓 수 있는 환경이 되듯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도 사회적 안정을 바라는 뜻에서 藻紋을 채용한 듯하다.

(3) 粉米紋樣

粉米는 쌀을 말하며 養民으로 象徵한 것이다.

粉은 粟의 낱알 혹은 얼음조각 같고 米는 쌀알을 모아 놓은 상태와 같다⁹⁸.

粉米에 대해 孔安國은 粉(粟泔)과 米(聚米)二章으로 表現했고, 鄭玄은 粉米를 一章으로 했다. 粉紋과 米紋은 그 크기가 약간 차이 있어 二章이라 했지만 그러나 穀物紋이라는 점에서 鄭玄이 粉米로 나타낸 것이다. 蔽膝에 나타난 粉米紋은 鄭玄의 說에 따르기로 하겠다. 農業生活의 始發과 동시에 粉米紋이 생겼다고 본다. 穀物은 生活에 있어 人間을 양육하는 것이니 일반 서민 生活에서 큰 관심을 나타낸 것이 되었다.

米, 粟, 黍, 稷 등을 motive로 穀物을 紋樣化하게 된 것은 사람을 保養하는 德을 自覺한 이후라고 볼 수 있다⁹⁷.

따라서 蔽膝에 粉米를 사용한 것은 농경생활에 필수적으로 穀物이 요구되었으므로 祭服의 蔽膝에다 粉米紋을 사용했다고 하겠다. 穀物로부터 德을 얻어 百姓을 保護하는 뜻을 취했으리라 보아진다.

(4) 黼紋樣

黼紋은 무늬라기 보다 蔽膝 그 자체를 도끼 形態로 해서 사용했음을 앞에서 밝힌바 있다. 黼紋의 始源은 結단이나 권위를 표현하기 이전에 단순한 形態로 채용된 것이라 본다. 三角紋이 黼紋의 原形이 아닌가 한다.

三角紋(△)을 약간 美化시켜 나온 것이 黼紋(𠂆)의 발생이라 생각되며 黼무늬가 채택됨으로서 權威나 決斷의 象徵을 부여했다고 본다. 黼紋은 斧形으로 白과 黑으로 斧를 그렸다. 冑(칼날 부분)은 白으로 하고 冑 부분은 黑으로 칠했다.

黼는 一說에 白은 西方色이요, 黑은 北方色이요, 西北은 黑白이 마주치는 곳이다. 따라서 乾陽이 함께 하여 剛健하니 義를 結단하는 것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도끼를 그려서 黑白으로 紋樣을 하였다⁹⁸.

△형은 뾰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 물건을 자를 수 있는 형태이고 △형에서 斧形으로 변했지만 그 기능은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斧形이 紋樣으로 전승되었다고 본다. 黼紋을 용도에 비추어 보면 자른다는 의미이니 結단과 권위의 뜻을 상징한 것이다. 통치자는 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結단이 위엄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黼紋을 통치자의 권위와 結단을 상징하는 紋樣으로 이용한 것이라 하겠다.

(5) 黻紋樣

黻紋은 亞字紋이다. 亞字紋은 雷紋에서 由來되었다고 한다. 앞에서 山形을 언급할 때 山形은 直線雷紋을 連續한 것으로 ㉠形에서 ㉡形으로 되어 다시 ㉢形과 S形, I形, 山形, 亞形으로 변형되었다 했으니 山形에서 변형된 것이 黻紋이라고 할 수 있다.

黻은 黑과 靑으로 兩己相背의 形을 이루는데 이것은 臣民이 善을 취하고 惡을 버리라는 것이다⁹⁹.

여기서 亞字가 두 己字라고 한 것은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가 싶다. 黑은 北方色으로 水이고 靑은 東方의 色으로 木인데 黑靑은 東北의 色으로 水가 木을 生하게 하는 左右相生의 이치에 맞다고 본다.

靑黃, 赤白, 黃黑, 白靑, 黑赤은 凶色配合이고, 靑赤, 赤黃, 黃白, 白黑, 黑靑은 吉色配合이다¹⁰⁰.

黑과 靑은 相生이고 吉色配合이라 하니 이치에 맞고, 조화로운 紋彩를 이루었다 할 수 있다. 黻紋은 兩己가 서로 등진 형상을 취해 君臣離合의 이치를 象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臣民은 善을 取하고 惡을 버리라는 向善背惡을 象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黻紋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君과 臣이 뜻을 합하여 바른 정치를 이끌어가는 공동체 의식을 나타낸다. 즉 黻紋은 太平時代를 바라는 精神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以上 蔽膝에 사용되어진 紋樣을 綜合해 보면 紋樣은 점차적으로 그 時代의 風土的, 美的 感受性에 응화되어 기호에 맞는 紋樣 形態로 造型化되며, 새로운 樣式으로 전개되는 現象을 찾아 볼 수 있다. 또 紋樣은 思想과 文化의 흐름이 동반되어 발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蔽膝의 紋樣은 德治의 堊원을 象徵한 것과 權威를 象徵한 것이라 하겠다.

V. 蔽膝의 象徴性

蔽膝이 처음에 앞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신체보호를 하기 위함이며, 또 종족보존을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文明이 발달함에 따라 원래의 蔽膝은 象徴的인 요소로 남게 되고 이것은 尙古精神에 의해서 전승되었으며, 계급사회가 형성됨에 따라 蔽膝은 권위를 나타내는 裝飾品이 되었고, 그것은 儀式用에 단 사용되었다. 蔽膝은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여러 가지 象徴的 역할을 하여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물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소멸되지 않고 전승되었다. 蔽膝이 象徴하는 것은 豐饒多産, 傳統性, 權威性 등이라 할 수 있다.

1. 豐饒多産의 象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풍성한 수확과 자손의 번성을 회구한다. 蔽膝은 원시적인 衣服에서 발달된 무릎 앞을 가리는 것이다. 그 착용 목적은 恥部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신체를 보호한다고 보아도 된다. 따라서 蔽膝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된 것이다. 蔽膝에 사용된 紋樣 가운데 粉米紋과 黼紋이 豐饒를 象徴한다. 우리나라는 곡물을 생활수단으로 삼았으니 쌀을 표시하는 粉米紋을 紋樣으로 넣어 생활에 필요한 식량이 풍성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취한 것이다. 또 형태와 紋樣에서도 多産을 나타내고 있다. 蔽膝의 형태가 斧形을 나타내거나 紋樣에서 黼紋을 표시함은 多産의 意味가 있다. 도끼가 豐饒多産을 의미함은 「三國遺事」에 나타나 있다.

「뉘가 沒柯斧(자루 빠진 도끼)를 許하련고, 내가 支天柱(하늘을 버틸 기둥)를 짊어 불까나」 이때 太宗(金春秋)이 듣고 이르되 此師가 貴婦人을 얻어 賢子를 낳고자 하는도다. 나라에 大賢이 있으면 그 利가 莫大하다¹⁰¹⁾.

沒柯斧는 生殖器을 암시하고 있으니 후손의 바램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蔽膝에 粉米紋을 채택한 것과

黼紋인 斧形을 나타내어 후손의 바램에 비유한 것과 蔽膝이 恥部를 가렸다는 것으로도 蔽膝을 착용한 意義에 豐饒多産의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傳統性的의 象徴

先史 時代부터 韍이 祭服으로 사용된 것과 最初의 衣服인 市이 禮服으로 傳承되었다는 것은 그 기원이 대단히 원시적임을 가리고 있다.

옛날에는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아 食事を 하였으며, 衣는 그 가죽을 가지고 먼저 앞을 가릴 줄 알았고 그 後에야 뒤를 가릴 줄 알았다. 後代王이 布와 帛으로 바꾸었는데도 앞을 가릴 줄 안 것은 根本을 잊지 않은 까닭이다¹⁰²⁾.

韍은 原始 社會에서 본래 앞을 가리는 것이었으나 民族文化의 發展 정도가 아주 향상되자 더욱 發展되어 服飾으로 쓰였다. 歷代 인습을 모방하여 行하면서 改造하지 않았다. 이때 이미 市과 蔽膝은 衣服이 아니고 袷에 다는 裝飾物이었다. 이 制度의 存在는 道理의 意義만 있다. 대개 食水思源이나 不忘祖德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¹⁰³⁾.

韍은 곧 蔽膝로 원시사회에 있어 본시 신체의 보호 혹은 恥部를 가리기 위한 단순하고 조잡한 형태의 衣服이었으나 文化가 발달하면서 布, 帛의 衣服이 생겨난 後에도 계속 祭服에 蔽膝이 착용되었다는 것은 古道를 중하게 생각하는 尙古精神의 발로라고 본다.

부모가 만든 法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 3년 동안 그 法을 고치지 않는 것이 효자라 한다¹⁰⁴⁾.

前代의 制度가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함부로 고치지 않는 儒敎精神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고수된 사회제도라 하겠다. 祭服에 蔽膝이 전승되었다는 것은 不忘祖德과 尙古精神의 傳統性을 나타낸 것이다.

3. 權威의 象徴

엄격한 階級社會가 되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尊卑의 구별이 필요하며 그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服飾으로 자기 다르게 표현했다. 즉 權威를 표시하는 것은 服飾 착용에 의한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蔽膝로 君과 臣만이 儀式用에 착용한 것이다. 身分高下에 따른 구별은 蔽膝의 양식에서 말한 바 있다.

縛은 보잘것 없는 有事라도 그것을 착용하고서 일에 임하여 尊卑를 구별하고 德을 세상에 밝힌다¹⁰⁵⁾.

蔽膝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國政에 나갈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尊卑의 구별을 나타내는 蔽膝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蔽膝이 權威의 象徵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蔽膝은 원시적 衣服의 기능에서 社會 文化의 발전에 따라 본래의 기능은 상실하고 象徵의이고 裝飾의인 것으로 변하여 權威의 象徵으로서 蔽膝이 착용되었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옛날에는 君臣이 佩玉하여 尊卑의 法度を 나타내었다. 上에는 韞을 착용하여 貴賤을 구별했다. 佩는 德을 밝힘으로써 服의 衷(中)이요. 韞은 事理를 지킴으로써 禮의 恭이다. 고로 禮에는 法도가 있고 威儀의 制度는 三代가 같다¹⁰⁶⁾.

蔽膝은 身分高下를 구별하게 하고, 事理를 지킴으로써 法도가 있게 하고, 禮儀를 恭敬하는데 그 착용 목적이 있으며, 蔽膝을 착용함으로써 완전한 복장을 갖추었다 할 수 있으니 權威를 증시하던 시대에는 더욱 증시되던 象徵物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蔽膝의 착용은 특수 의식에만 한정되었고 또한 신분에 따라서 착용이 제한되었다 하겠다.

蔽膝 착용의 定義는 첫째, 生活 공급의 풍성함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粉米黼紋을 채택했다. 또 先史 時代 蔽膝 형태가 도끼 형상을 하였다는 것은 자손의 번성을 암시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豊饒多産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둘째, 원시적 衣服 형태인 市을 잊지 않고 禮服에 착용한 것은 옛 것을 잊지 않고자 하는 尙古의 傳統性에 의한 것이다. 세째, 禮服에 蔽膝을 착용함으로써 成服이 되고 그것은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象徵物이며, 蔽膝에 자수를 하거나 紋樣을 넣어 아름답게 장식함은 蔽膝이 裝飾性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VI. 結 論

韓國의 蔽膝은 언제부터 祭服에 사용되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龜神塚에 나타난 婦人圖에 의해서 우리나라 蔽膝은 高句麗 時代부터 사용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蔽膝은 무릎 앞을 가리는 것으로 衣服의 원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원시 衣服이 차차 발달하여 일상복이 되고, 이것이 더욱 美化되어 禮服으로 변화되었다. 禮服에서는 인간의 根本을 잃지 않는다는 儀禮精神을 증시했으므로 원시 衣服 형태인 蔽膝을 禮服에 착용함으로써 尙古精神을 나타내었다.

蔽膝의 根源, 制度, 用途 등에 대한 이 論文에서 얻은 結論은 다음과 같다.

1. 市는 衣服 가운데 가장 먼저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을 가리기 위해 띠에 市을 연결시킨 지극히 단순한 형상이다. 蔽膝의 根源을 보면 高句麗 時代에 禮服으로 착용되었으므로 市이 처음 나타난 시대는 그보다 훨씬 앞선 上古 時代라 할 수 있을 것이다. 上古 時代에 市이 유일한 衣服으로 사용되다가 人智의 발달과 함께 禮服에 착용되어져 정착되었다.

2. 韓國 蔽膝은 高句麗 이후 朝鮮 末까지 꾸준히 전승되었다. 高句麗 時代의 蔽膝은 中國의 蔽膝과 다른 독자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나 高麗 仁宗과 毅宗 때 착용한 蔽膝은 中華의 漢民族인 宋代制度和 비슷하여 다른 문물과 함께 蔽膝의 형태도 中華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朝鮮 中期 肅宗 때에는 中國 胡族의 服飾을 따를 수 없다 하여 蔽膝을 독자적으로 제작했다. 大韓帝國이 되면서 中國과 대등한 위치에서 冕服을 착용했으며 그 制度는 淸의 制度和 같은 것이 아니라 明代 嘉靖 八年의 制度和 같다. 오늘날 韓國 蔽膝은 모두 纁色이라고 고정되어 있는데 高宗이 착용한 蔽膝은 嘉靖 八年에 제작된 蔽膝의 制度和 같으므로 그 색은 黃色이었다.

3. 蔽膝은 太古 時代의 市에서 생긴 것이다. 儀禮用으로 됨에 따라 그 制度가 복잡하게 변화했다. 高句麗 時代 모양은 U字形이었으며 색이나 紋樣은 알 수 없었다. 高麗 時代는 사다리꼴로 위의 넓이 一尺, 아래의 넓이 二尺, 길이는 三尺이며 纁色에 山, 火紋이다. 朝鮮 時代 初期, 中期는 纁色에 藻, 粉米, 黼, 黻紋이다. 大韓帝國 때 高宗이 착용한 蔽膝은 黃色에 龍, 火紋이다.

4. 蔽膝은 祭服, 朝服에 착용되는 禮服이다. 蔽膝은 身分高下를 구별하게 하고 事理를 지킴으로써 法도가 있게 하고 禮儀를 恭敬하는데 그 착용 목적이 있다. 身分高下의 구별은 威儀를 表하는 것이며 儀式에 착용하여 德을 세상에 밝혀 百姓을 다스리는 사람의 道理를 다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蔽膝은 특수 의식용에 사용되어지는 服飾으로서 不忘祖德의 精神에 입각한 것이다.

5. 蔽膝이 儀式用으로 전승된 것은 원초에 恥部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기능은 앞을 가린다는 것과 豊饒多産의 뜻에서 증시했던 것이다. 점차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蔽膝이 기능적인 목적에서 象徵의인 것으로 바뀐 것은 尙古精神에 의한 것이다. 階級社會가 됨에 따라 尊卑의 區別이 필요하게 되었고 蔽膝을 착용함으로써 裝飾과 權威를 象徵할 수 있었다.

6. 이와 같은 研究를 통하여 蔽膝 變遷의 중요한 法則을 도출할 수 있다. 어떤 기능을 가진 蔽膝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면 象徵的, 裝飾的인 새로운 기능으로 변하게 되어 지배자들은 權威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물로 裝飾的인 服飾을 착용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이 蔽膝變遷의 法則이라 하겠다.

註

- 1)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출판부, 265, (1965).
- 2) 張揖, 廣雅, 釋話二, 蔽障也.
- 3) 殷王裁, 說文殷注, 韜者 在脛之首 股與脚閒之巾也 故从巾俗作膝.
- 4) 朴珪壽, 居家雜服攷, 外服, 孔氏穎達曰 易乾鑿度 注云 古者田魚而食 因衣其皮 先知蔽前後知蔽後 後王易以布帛 猶存蔽前 不忘本也.
- 5) 許慎, 說文解字, 偏芻考, 吳氏照曰 韜也 上古衣蔽前而已 巾以象之从从 巾象連帶之形.
- 6) 朴珪壽, 前揭書, 先知蔽前 後知蔽後.
- 7)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臺北, 中華大典編印會, 104, (1969).
- 8) 金長生, 家禮輯覽, 第一, 圖說.
- 9) 劉熙, 釋名, 釋衣服, 韜韜也 韜蔽膝也 所以蔽膝也
- 10) 張揖, 廣雅, 釋器, 大巾蔽膝也.
- 11) 王宇清, 前揭書, 說文篆文章从次从 韜的別稱有很多種 或作芻作韜作蔽膝作大巾等 因用途 或因方言之不同而有所歧異
- 12) 郭璞, 方言, 蔽膝云云 魏宋南楚之間 謂之大巾 自關東西謂之蔽芻 蔽芻江淮之間 謂之韜 自關東西謂之蔽膝
- 13) 孫愐, 廣韻, 韜韜蔽膝
- 14) 丁度, 集韻, 韜通作芻
- 15) 張自烈, 正字通, 韜 說文本作韜 或作韜
- 16) 詩傳大全, 小雅采芻, 鄭箋 芻太古蔽膝之象也
- 17) 春秋, 左氏桓二, 衮冕蔽芻注 蔽韜 韜以蔽膝也
- 18) 范曄, 後漢書, 輿服志, 徐廣曰 如巾韜蔽膝
- 19) 王圻, 三才圖會, 臺北, 成文出版社, 芻太古蔽膝之象字 當作韜 古字通用
- 20) 白虎通, 緝者何訓也 緝者蔽也 行以蔽前緝蔽.
- 21) 金東旭, 增補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72, (1973).
- 22) 高丞, 事物紀原, 卷三, 韜, 五經要義曰 韜舜所製
- 23) 禮記, 明堂位, 有虞氏服韜 夏后山 商火 周龍章 鄭康成注曰 韜舜所作之 以尊祭服 三代增以畫文 蓋冕服之韜也.
- 24) 權桂淳, 韓國服飾의 文化史的 研究, 호례논문집, (1969).
- 25)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商代墓葬中的玉石陶銅人形, 台北, 商務印書館, (1981).
- 26) 上揭書
- 27) 鄭麟趾, 高麗史, 卷二十六, 輿服, 百官祭服
- 28) 권동녀, 古今圖書集成, 宋, 宋初君臣冠服之制, 中國學術類編
- 29) 增補文獻備考, 卷七十九, 禮考二十六, 章服一
- 30) 太宗實錄, 卷六, 太宗三年九月, 辛未, 薰色粧花蔽膝一件上帶玉鈎五色線繅全.
- 31) 世宗實錄, 卷 103, 世宗 26年 3月丙子, 謝恩使柳守剛 賚勅書及冠服 回自京師 王世子率群臣 迎于五里亭 其勅曰……繅色粧花蔽膝.
- 32) 國朝五禮儀序例, 卷 1, 吉禮, 祭服圖說 殿下冕服蔽膝以繅爲之其色繅上有紕下有純去上五寸繅以藻粉米黼黻.
- 33) 上揭書, 王世子冕服, 制與九章同.
- 34) 國朝絃五禮儀補序例, 卷 1, 吉禮, 王世孫冕服圖說 蔽膝制同王世子蔽膝而惟繅黼黻各一於左右.
- 35) 世宗實錄, 卷 82, 世宗 20年 10月 丙辰, 傳旨尙衣院 高麗恭愍王時 蒙賜遠遊冠袍 年代久遠 累次改造 其時中書省咨內 無佩玉與圭 冕服蔽膝有山火 遠遊冠袍蔽膝無山火今尙衣院所在 遠遊冠袍 有單佩玉蔽膝有山火 此固可疑.
- 36)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臺北, 中華大典編印會, (1969).
- 37) 國朝五禮儀序例, 卷 2, 嘉禮冠服圖說, 遠遊冠服, 蔽膝以絳羅爲之上有紕下有純.
- 38) 國朝絃五禮儀補序例, 卷 2, 嘉禮 王世子遠遊冠服圖說, 蔽膝以絳羅爲之亦同殿下蔽膝.
- 39) 世宗實錄, 卷 31, 世宗 8年 2月庚寅, 永樂六年正月曰賜王世子朝服五梁冠赤羅衣白. 絃中單赤羅裳蔽膝革帶綬白襪黑履象笏祭服五梁冠青羅衣白紗中單赤羅裳蔽膝方心曲領紅白大帶革帶綬白襪黑履象笏… 乞依唐宋之制 王世子 凡大朝會服五梁冠角簪赤羅衣白紗中單俱用青飾領綠赤羅裳青綠赤羅蔽膝大帶用赤白二色絹革帶用金佩用玉綬用黃綠赤紫四色絲織成雲鶴花錦下結青絲網綬環二用金笏用象牙白襪黑履正朝冬至朝賀中官服朝服受群臣賀着公服幘頭紅袍屨帶象笏黑靴

- 40) 石宙善, 衣, 단국대학교출판부, (1985).
- 41) 國朝五禮儀序例, 卷 5, 凶禮, 服玩圖說 體制半
- 42) 國朝喪禮補編, 圖說
- 43) 金明淑, 朝鮮後期 冕服의 變遷, 服飾 제 7 호, 122, (1983).
- 44) 王宇清, 冕服服章之研究, 台北, 中華叢書編審委員會, (1966).
- 45) 大韓禮典, 4卷, 掌禮院(朝鮮編), 寫本, 藏書閣. 禮服, 李王職式課編, 光武 2年, 藏書閣.
- 46) 진몽치, 前揭書, 明, 洪武十六年 定冕服之制, 皇帝冕服……袞服元衣黃裳蔽膝 隨裳色 繡龍火山文 皇太子冠服……元衣纁裳 蔽膝隨裳色 織火山二章 親王冠服……青衣纁裳蔽膝隨裳色 織火山二章 文武官陪 祭服一品至九品……青羅衣赤羅裳皇綠赤羅蔽膝
- 47) 大明會典, 卷之六十, 禮部十八, 冠服一, 成祖永樂三年更定皇帝袞冕及皇太子以下冠服之制, 皇帝冕服——元衣纁裳 蔽膝隨裳色 四章織藻, 粉米, 黼, 黻, 各二本
皇太子冠服——皇帝冕服斗 同一합.
親王冠服——青衣纁裳蔽膝, 이하 皇帝冕服斗 同一합
世子冠服——親王冠服斗 同一합.
皇太子妃冠服——翟衣深青爲質織 文蔽膝隨衣色 織翟爲章二等 間以小輪花三.
- 48) 前揭書, 嘉靖八年更定袞冕及文武冠服之制, 皇帝冕服——衣元色 裳黃色 蔽膝隨裳色, 羅爲之 上繡龍 一下繡火三, 文武官冠服——赤羅青綠 蔽膝 綴革帶
- 49) 진몽치, 前揭書, 第三百二十卷, 隋, 煬帝大業二年 詔定冠服之制
- 50) 朴珪壽, 居家雜服攷, 外服, 爵鞞, 鞞長三尺 下廣二尺 上廣一尺會去上五寸 紕以爵韋 六寸不至下五寸 純以素 紕以五采 其頸五寸 肩革帶二寸
- 51) 禮記, 雜記, 鄭玄注, 會謂領上縫也 領之所用 蓋與紕同 在旁曰紕 在下曰純 紕六寸者 中執之表裏各三寸也 純紕所不至者五寸 與會去上同 紕施諸縫中 若今時條也.
- 52) 禮記, 玉藻, 鄭玄注, 頸五寸 亦謂廣也 頸中央 肩兩角 皆上接革帶以繫之 肩與革帶廣同.
- 53) 禮記, 雜記, 孔穎達注, 鞞鞞也 長三尺 與紕齊也 下廣上狹 象天地數也 會去上五寸者 會謂鞞之領縫也 此縫去鞞上畔 廣五寸謂會上下廣五寸 紕以爵韋六寸者 謂會縫之下 鞞之兩邊 紕以爵韋闊六寸. 倒禡之兩廂 各三寸也 不至下五寸者 謂紕鞞之兩邊不至鞞之下畔 闊五寸 純以素者 素以生帛此帛上下闊五寸 也 紕以五采者 紕條也 謂五采之條 置於諸縫之中.
- 54) 禮記, 玉藻, 孔穎達傳, 頸五寸 亦謂廣者 鄭恐上下長五寸故云亦謂廣也 其上下乃肩帶俱二寸.
- 55) 朴珪壽, 居家雜服攷, 外服, 爵鞞, 上廣一尺 下廣二尺 天一地二也 長三尺法天地人也.
- 56) 說文, 三數名天地人之道.
- 57) 高承, 事物紀原, 卷三, 衣裳帶服部 十五, 鞞, 蘇代演義曰 昔先王食鳥獸之肉 衣其羽皮 鞞字遂從韋皮也.
- 58) 王圻, 三才圖會, 卷二, 冕服謂之芾 其他服謂之鞞 以韋爲之.
- 59) 朴珪壽, 前揭書, 鞞芾也, 芾蔽膝也, 以韋爲之
- 60) 論語集註大全, 素伯第八, 朱子曰韋韋皮也
- 61) 權五惇譯, 禮記, 月令, 弘新文化社, 145.
- 62) 渡邊素舟, 中國古代文樣史上, 雄山閣(1976).
- 63) 朴珪壽, 前揭書, 今亦當以獐鹿等韋 染而爲之後世 韋屬不易備得 代以布帛染成 亦不放也.
- 64) 王圻, 三才圖會, 衣服卷二, 蔽膝 以羅爲表 絹爲裏
- 65) 임동권, 韓國民俗學論攷, 서울, 宣明文化史, 87, (1971).
- 66) 段玉裁, 說文解字注, 台北, 藝文印書館 中華民國四十九年, 十三篇上, 大紅如日出之色 朱紅如日中之色 日中貴於日出 故天子朱市 諸侯赤市 赤即絳也.
- 67) 高承, 前揭書, 周諸臣所服又有緇赤之別.
- 68) 李家源譯, 詩經, 小雅甫田之什, 弘新文化史(1980) 朱芾斯皇赤芾金烏.
- 69) 진몽치, 前揭書, 天子朱紕 諸侯赤紕.
- 70) 禮記, 玉藻, 一命緇鞞 再命赤鞞 三命赤鞞注 緇赤黃之閒色 所謂韋也 周禮 公侯伯之卿三命 其大夫再命 其士一命 子男之卿再命 其大夫一命 其士不命.
- 71) 임동권, 前揭書, 97~98.
- 72) 朴珪壽, 前揭書, 染羽以朱深丹秬 三月而熾之 淳而清之 三入爲纁 五入爲 七入爲緇此是染黑法 無四入六入之文 禮有玄朱之色 故註 此玄則六入 下經註朱.
- 73) 爾雅, 一染謂之緇 再染謂之緇 三染謂之纁
- 74) 論語, 纁入赤爲朱 苦以纁入黑卽爲紺.
- 75) 禮記, 月令, 垂朱路, 疏, 色淺曰赤 深曰朱.
- 76) 王宇清, 中國古代服裝史綱, 대안, 中華大典編印會 148, (1969).
- 77) 段玉裁, 前揭書, 十三篇上, 十四, 大紅如日出之色 朱紅如日中之色 日中貴於日出 故天子朱市 諸侯赤市 赤即絳也.
- 78) 爾雅, 釋草, 茅蒐一名茜可以染絳.
- 79) 說文, 絳大赤也.

- 80) 段玉裁，前揭書，大赤者今俗所謂大紅也 朱紅淡大紅濃 大紅如日出之色 朱紅如日中之色
- 81) 前揭書，絳大紅也。
- 82) 李翼，星湖僿說，卷六十四，萬物門 黑宛醜。
- 83) 徐有架，林園十六志，卷三，展功志，1764。
- 84) 禮記，玉藻，賈公彥疏，緇赤黃之間色 所謂黻也
- 85) 周易，黃而兼赤爲纁
- 86) 段玉裁，前揭書，古以茜染者 謂之黹 謂之緹。
- 87) 詩經，小雅，瞻彼洛矣，黻韜者 茅解言爽之由 以其用茅蒐之 草染之其草赤色故也 古人之道茅蒐 其聲如黻韜 故各此衣爲黻韜也。
- 88) 儀禮，士冠禮，今齊人 各荷爲黻韜。
- 89) 鄭道和，韓國紋樣의 樣式史의 考察，진주교대논문집，(1978)。
- 90) 禮記，明堂位，山取其仁可仰也。
- 91) 黃近根，高麗銅鏡의 考證은 韓國文樣史，悅話堂。(1978)。
- 92) 王宇清，冕服服章之研究，中華叢書編審委員會，62 中華民國五十五年。
- 93) 正字通，藻本作藻从艸水巢。
- 94) 詩經，匭風，魚在水藻 是藻爲水草 草類多矣 獨取此草者 謂此草有文故也。
- 95) 渡邊素舟，前揭書下，129。
- 96) 尚書，粉苕粟米 米苕聚米。
- 97) 渡邊素舟，前揭書下，130。
- 98) 正字通，黻一說 白西方色 黑北方色 西北黑白之交 乾陽竝剛健 取斷割義 故書斧以黑白爲文。
- 99) 周禮，春官，司服疏，黻黑與青爲形則 兩已相背 取臣民背惡向善。
- 100) 李正玉，朝鮮時代 冠禮服飾의 研究，慶北大學校博士學位論文，75。(1984)。
- 101) 一然，三國遺事，卷四，元曉 不羈，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時太宗聞之曰 此師殆欲得貴婦 產賢子之謂爾 國有大賢 理莫大焉。
- 102) 朴珪詩，前揭書，古者 田漁而食 因衣其皮 先知蔽前後知蔽後 後王易 以市帛 猶存 蔽前 不忘本也。
- 103) 王宇清，前揭書，104-105。(1969)。
- 104) 孔子，論語，爲政篇，三年無改於父之道可謂孝矣
- 105) 白虎通，緇冕，緇者，行以蔽前 緇蔽誰小 有事因以別尊卑彰有德也。
- 106) 後漢書，輿服志，古者 君臣佩玉，尊卑有度，上有鞅貴 賤有殊佩以章德 服之衷也 鞅所以執事 禮之共也 故禮有共度 威儀之制 三代同之。